

복지부동 권하는 사회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작년 어느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 이 말로 안철수 의원이 구설에 올랐다. 아인슈타인도 “Nothing happens until something moves(뭔가 움직이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그 자체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로운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그 뒤에 숨은 배경을 들추어내야만 그 의미가 밝혀지는 말들이다.

그래서일까? 시교육청에서는 용연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밝혔지만, 언론은 여전히 폐교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교사노조는 폐교반대 서명 운동까지 벌인다. “용연학교 폐교는 황당하고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언론에 기고문을 실어도, 너무 당연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다른 공방기가 있다고 생각하나 보다. 지금의 학교 현실을 생각할 때 학교부적응 학생을 돕는 대안교육 위탁기

관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학교부적응 학생의 위탁을 위해 위스쿨(Wee School)을 두고 있다. 그런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용연학교를 폐교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답하고, 용연학교를 찾아가 말하고, 교사노조에도 찾아가 그런 일은 없다고 하고, 시교육청의 담당 부서와 정책 책임자들이 용연학교와 간담회도 했다.

그런데도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용연학교 재구조화’가 곧 폐교를 말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이다. 용연학교가 2008년 개교할 당시와 지금은 십수 년의 세월만큼이나 많이 바뀌었다. 당시에는 괄괄한 성격의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심리·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 코로나19 원격수업으로 인해 도덕성과 사회성이 결여되고 규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학교에서는 몰랐지만 느린 학습자로 밝혀지는 학생들도 있다. 용연학교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검사와 치료를 연계하고, 경우에 따라 특수교육이나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부적응의 이유가 다양해진 만큼 그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18분의 교직원 이 5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는데, 그 중 광산구에 사는 학생이 30명 정도 된

다. 학교가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는 학생들을 생각하고 일주일 단위의 단기위탁 과정도 개설한다면 학교를 나누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나주병원과 조선대병원에 병원형 Wee센터도 생긴 만큼, 기관간 연계와 역할조정도 고려해야 한다. 용연학교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는 용연학교 폐교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미움받을 용기’를 써서 대중에게 아들러 심리학을 소개했던 기시미 이치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아들러의 교육론을 소개한다. 그 핵심은 ‘용기 부여’이다. 야단맞거나 칭찬받으며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어떻게 하면 야단맞지 않을까만 생각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자기밖의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 어른들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도 없다. 복지부동하는 이유이다.

누구라도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는 없다. 그런 사람을 탓하면 누구도 일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도 했다. “배는 정박해 있을 때 늘 안전하다. 하지만 그러려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社說

5·18 유해이관, 행불자 찾기 적극 나서야

유전자 정보 등 시료화도 끝내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과정에서 출토된 유해, 확보된 행방불명자 가족 유전자 정보에 대한 이관 과정을 조만간 마무리 짓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 북구 광주도시공사 영락공원에 5·18 당시 희생돼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유해 19기를 안치한다. 시는 앞서 지난 4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무연고 유해이관 협약을 맺었다.

시는 조사위가 확보하고 있던 유해 총 280기(조사위 직접 발굴 19기·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소 인계 261기) 중 5·18 연관성이 있다고 점쳐지는 유해들을 이관받는다. 이관받기로 한 유해 중에는 5·18 당시 해남 우של재에서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생자도 포함됐다. 시는 19기 중 상태가 온전한 17기에 대해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시료화도 마쳤다. 5·18 행불자 가족들의 유전자 정보와 보관 전용 설비까지 이관받으면서 추후 의뢰가 있을 경우 시가 주관하는

유전자 정보 대조작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날 기준 5·18 행방불명자 유족들의 대조 의뢰가 3건이 들어온 상태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44년째 이어진 5·18 행불자 찾기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이 보이고 있다. 5·18 행불자 유족들의 간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5·18 때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은 445명이라고 한다. 이중 정부가 공식 인정한 행방불명자는 84명뿐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가족의 유골이라도 찾기 위해 초조히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유해 이관은 암매장 소재 발굴, 5·18 관련성, 행불자 소재 확인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대다수 5·18 행불자들은 반세기 가까이 찾지 못하고 있다. 행불자 유족들마저 고령화되고 있다. 행불자 유족들의 마지막 소원이 ‘눈을 감기 전에 유골이라도 찾는 것’이라고 한다. 광주시가 행불자 관련 자료와 유해를 이관받은 만큼, 앞으로 5·18행불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재앙, 농민에만 전가 안돼

선제적 지원으로 농민 돌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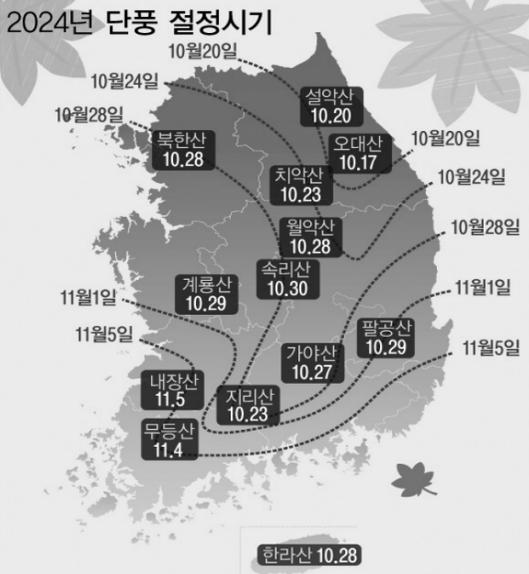
전남도가 역대급 폭염으로 발생한 버벌구 피해와 인삼 고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호우,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지키고 농민을 돕는 것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비 지원을 촉구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21일부터 8월 말까지 폭염일수가 23.1일로 평년보다 16일이나 길고 평균기온 또한 28.5도로 높아져 버벌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인삼도 잎마름 등 생육장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재 전남도내 버벌구 피해는 전체 비 재배면적 14만 8000ha의 13.3%인 1만 9603ha에 이른다. 폭염으로 인삼의 잎과 줄기가 말라죽는 피해도 전체 인삼재배 면적의 38%에 달하는 135ha로 집계됐다. 설상가상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전남에서만 1030.3ha의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는 식량안보는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전이다. 농업재해의 빈도와 강도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에 주어진 당연한 역할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농민의 손실도 지역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대량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등 작금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도시민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불러온 농업재해를 농민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쌀값 하락에 각종 재난까지 겹치면서 농도인 광주·전남지역 농촌과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쌀 값을 지켜내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성도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에 대한 원성도 높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선제적 지원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독여 줘야 한다. 국회 등 정치권도 농민들의 애로 사항을 찾아 항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집계됐다. 설상가상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쏟아진 역대급 폭우로 전남에서만 1030.3ha의 벼가 쓰러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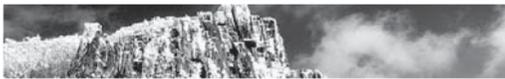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22일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9일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서는 10월15~17일, 지리산과 남부지방에서는 10월14~24일 사이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풍 절정 시기는 오대산과 설악산에서 10월17~20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에서는 10월28~30일, 지리산과 남부지방에서는 10월23일~11월5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서석대



프랑스의 문학평론가인 르네 지라르는 사회적 지위나 시공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 ‘경쟁’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경쟁과 갈등은 대부분 욕망을 바탕으로 생겨나는데, 욕망의 주체와 중개자 간의 사이가 멀 경우에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나, 가까울 경우 상대방의 욕망을 마치 자신의 욕망으로 모방하는 ‘소유모방’이 일어난다. 이 경우 욕망의 대상이 동일해지며 서로 간의 경쟁의식이 치열해지게 되면

동일한 목표를 위한 ‘경쟁’

서로 갈등과 경쟁이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주체들은 서로를 비방하고 제거하려고 노력하며 서로가 먼저 이 동일한 ‘욕망’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체들의 관심사는 ‘욕망’ 그 자체가 아닌 이 다른 주체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이른바 ‘목적 전도현상’에 갇히게 된다. 결국 같은 욕망, 또는 목표를 위해 달리는 이들만이 서로 경쟁하고 갈등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목적 전도현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경쟁을 뜻하는 프랑스어인 ‘concurrency’를 살펴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진다. ‘concurrency’의 라틴어 어원인 ‘competere’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함께를 뜻하는 ‘com’과 노력하다는 의미를 가진 ‘petere’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함께 노력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프랑스어인 ‘concurrency’도 직역하면 ‘같이 달린다’는 의미이나,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은 방향으로 함께 달리는 것’을 뜻한다. 달리는 방향, 즉 욕망이나 목표가 같을 때에만 경쟁이 일어난다는 것.

2026년 지방선거 미리보기로 급부상하며 전국적 관심을 받고 있는 10·16 영광·곡성군수재선거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며 ‘경쟁’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든 당과 후보들이 ‘지역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정말 ‘경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일지도 모르겠다.

한 명의 유권자로서, 당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후보자 간 비방이나, 이번 당선을 더 큰 목표를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하는 것은 르네 지라르가 말한 ‘목적 전도현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을까. 부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진심이었기를 바라며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오지현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340	문화체육부 (062)510-0351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